

그 무엇보다 조합원! 서비스!

행동과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심의회 중앙선관위-4
2022. 3. 5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 후보

강 선 미
김 승 민



위원장 후보 강 선 미



◆ 주요경력

1989 대구과학대학 전산과 졸업
 2003 서서울영업소 입사
 2020 수도권서부센터 인사.심사담당
 2022 현 군자영업소

◆ 노동조합경력

톨게이트 노동조합 사무국장
 통상임금소송, 근로자 지위 및 임금 소송 진행



수석부위원장 후보 김 승 민



◆ 주요경력

2010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2015 축동영업소 입사
 2022 현 곤양영업소

◆ 노동조합경력

진주지부장
 부산경남 사무국장

언제부턴가 현장에서 조합원을 만나면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을 잔뜩 얘기합니다.
 출퇴근은 멀어지고, 정들만 하면 발령나고, 인원은 부족하여 하루도 맘 편히 실 수가
 없는데 노동조합은 전혀 딴 세상 사람처럼 방관만 하고 있다고,
 이런 상태로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한 삶으로 지켜내겠습니다.

3월 18일 강선미, 김승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조합원을 중심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반드시 쟁취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노 동 조 합

- 조합비 10% 인하 - 월 1천만원 절감 효과
- 외부회계감사 - 중앙 및 지역본부
- 전국 소통 채널 운영(밴드)
- 월2회 활동계획과 결과보고
- 년1회 전국 영업소 순회 - 조합원소통, 근무여건점검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임금 / 복지

- 호봉제 임금체계 추진 (4면에 설명)
- 임금소송 일정대로 책임완수 (4면에 설명)
- 출퇴근 통행료 실비지급
- 임금협상 하반기 실시 - 잔여 노무비 정산가능
- 급지수당 조정 - 모자영업소
- 자격증수당 신설-업무활용 자격증
- 생애주기 건강검진 시행 - 만40, 45, 50 등/검진비 35만원
- 장기근속자 포상 - 근속 20년, 25년
- 퇴직 예정자 연수실시

인사 / 제도

- 정년퇴직 하반기 통일(12.31일부) - 6월 정년자부터 즉시 추진
- 영업소 부족인력 채용 · 충원
- 인사발령 정례화 - 최소발령
- 원격지 근무는 차기 우선권부여
- 승진시험제도 개선 - 희망 대상자 모두에게 기회부여
- 승진시험 점수 공개 - 커트라인 등

일터 / 기타

- 야간 시차근무 폐지
- 영업소 방법 강화 - 세콤 등
- 독립사옥 건립 - 셋방살이 탈출
- 피복 디자인 개선 및 지급시기 조정
- 근골격계 질환예방 - 안마의자 보급, 직업병 관련 대책수립

왜 다시 호봉제 인가?

도공 직고와 자회사 전환

이 간단한 문구는 서로의 선택에 대하여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회사를 선택한 우리는 기존에 하던 수납/사무실 업무를 하면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느라고) 연장과 감운영이라는 업무환경에 마지 못해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고가 된 사람들은 특정한 일을 부여받지 못해 도로 환경 정비를 업무로 통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자회사에는 임금 인상, 승진, 수납업무 집중 등 장밋빛 미래가 있다.

직고는 해고, 퇴약별 아래 풀뽑기 등 고된 일이 기다린다 -

이런 설득에 대다수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임금체계인 직무급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는 언제 적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시범케이스의 단계적 직무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호봉제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약 절반에 불과하고 각종 복리후생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자회사 전환 당시 직고에 비하여 더 나을 것이라는 말이 단순한 회유정책이 아니라 사실이 되도록 저희는 제도를 바꾸고자 합니다.

직고와 자회사 선택 3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위 및 임금 소송!

‘지위 및 임금’ 소송은 변호사가 법리를 잘 다루는 문제이지 소송대표가 누군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송미옥 외, 강선미 외, 이대한 외, 김성원 외, 박진아 외, 류동준 외... 등 서로 다른 소송대표로 진행되는 지위임금소송은 수십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점이 소송대표 문제가 아니라 소송대리인 변호사에 달린 것을 증명합니다.

최초 소송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2298 송미옥 외. 사건을 진행 하면서 소송대표 송미옥을 도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취합, 정리하고 오늘의 우리 소송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위 및 임금소송을 강선미는 일정대로 끝까지 책임완수 하겠습니다.